

# 北韓藝術團體의 經濟煽動事業

李 根 三

本 研究는 1987 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東亞研究 第15輯 別冊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1988. 10

# 北韓藝術團體의 經濟煽動事業\*

李 根 三

## I

藝術家들은 自己目的的인 創作行爲를 1次的인 義務로 생각하지만 國家非常時나 學族的인 祝祭 또는 啓蒙을 위해 時流에 適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1,2次 世界大戰時의 藝術, 演藝人들의 戰線, 後方生産工場의 訪問이 환영을 받았고 가까운 6.25 動亂때도 우리의 文人 藝能人들은 國防部 政訓局의 선전 계몽요원으로서 兵士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慰問公演을 활발히 展開하였다.

平常時에도 우리 演藝人들과 學生들은 農漁村을 상대로 慰問내지는 啓蒙을 目的으로 地方巡迴를 여태껏 계속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 演劇人들은 長期間에 걸쳐 農漁村을 누비며 위문, 계몽에 그치지 않고 벽촌에서 住民과 生活를 같이 하기도 한다. 劇團 「架橋」는 60年度初에 퇴비 增産 方法과 癲病 早期治療法을 계몽하기 위해 어떤 團體의 後援으로 喜劇의인 單幕劇 2편을 들고 근 2年間 全國 방방곡곡을 巡回하며 住民들과 거의 同居生活을 하다시피 했다. 이들은 그 계몽공연이 本格的인 藝術行爲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藝術家의 社會參與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듯 演藝人들의 自發的인 慰問·啓蒙公演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國家의 管理下에 藝術人들이 大衆속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1929年 美國의 經濟恐慌은 순식간에 美國演劇界를 황무지로 만들었고 演劇人들을 거리에 내몰게 되었다. 美國 聯邦政府는 生活手段을 잃은 演劇人을 돕기

\* 本 研究는 1987年度 文教部 共産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위해 이른바 聯邦演劇計劃(The Federal Theatre Project)을 세웠다. 政府는 演劇을 돕는 대신 演劇人들에게 經濟恐慌에 시달리고 希望을 잃은 國民들을 慰安하도록 권했다.<sup>1)</sup> 물론 그 결과는 政府의 당초 希望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演劇人들은 大衆속에 파고 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 한편으로 藝術이 政治의 手段으로 利用되어 藝術人들이 黨이나 國家의 政策을 알리고 啓蒙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藝術중에서도 公演을 통해 표현하는 演劇같은 예술은 그 강한 呼訴力과 大衆을 상대로 한다는 사실로 해서 政治와 密接한 관계를 갖는다. 蘇聯은 1917年 革命이 成功하자 民衆을 思想的으로 결속하는 手段으로서 演劇을 적극 支援, 1926년에는 全國에 걸쳐 20,000 개 가량의 劇團을 組織, 黨의 政策內容을 담은 연극을 公演케 하였다.<sup>2)</sup>

中共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다. 毛澤東은 延安時代에 이미 藝術의 大衆침투를 강조, 專門家들은 大衆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指示했다.

“우리 藝術專門人들은 基幹要員들을 爲할 뿐만이 아니라 主로 大衆을 爲해서 일을 해야 한다. 專門人들은 軍隊나 村落의 素人劇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分野의 동무들은 大衆을 爲한 文學과 藝術을 보급하는 동무들과 밀접한 접촉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大衆을 인도하고 예술보급을 도우며 또 한편으로는 大衆들로부터 배우기도 해야 한다.”<sup>3)</sup>

毛澤東은 宣傳手段으로서의 演劇의 중요성을 인식, 1960년에는 全國에 걸쳐 39,000 개 노동자 素人劇團과 244,000 개의 農民 素人劇團을 組織하였다.<sup>4)</sup> 이 엄청난 수의 노동자, 농민 劇團을 통해 毛澤東은 자기의 思想을 大衆에게 심으려 했고 한편으로는 노동자, 농민들의 團結을 도모하려고

- 1) C.W.E. Bigsby, *Twentieth-Century American Drama*, (Cambridge Univ. Press, 1982), pp.211~212.
- 2) Oscar G. Brockett, *History of the Theatre* (Boston: Allyn & Bacon Inc., 1968), p. 600.
- 3) Colin Mackerra, *Chinese Theatre* (Honolulu: Univ. of Hawaii, 1983), p. 159.
- 4) *Ibid*, p. 160.

했던 것이다.

그러나 藝術家들의 自發的인 社會參與나 蘇聯, 中共과 같은 統制下的 藝術人 또는 素人들의 參與는 公演 그 자체에 意義를 부여해 왔다. 즉 慰問, 啓蒙, 또는 政治宣傳 內容을 담은 作品을 公演함으로써 그들의 目的을 達成하고자 했다.

北韓이라고 해서 藝術, 특히 公演藝術을 대하는 視角이나 態度에 있어 蘇聯이나 中共의 그것들과 다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北韓의 藝術人들도 黨의 철저한 統制下에서 指示를 받아 宣傳公演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들은 藝術宣傳이라는 말을 正當化하지만 얼마전 부터는 藝術人들의 經濟煽動을 중요한 政策手段으로 強調하고 있다. 落後된 經濟狀態를 끌어 올리는 데는 근로자들의 加一層의 努力이 요구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生産意慾을 높이고 그들을 思想的으로 강력하게 武裝시키는 데 藝術人들의 積極的인 勞動現場에서의 公演이 不可缺의 要素라고 主張한다.

金日成의 독창적인 경제선동의 중요성 착안과 金正日의 현명한 指導로 藝術人들의 경제선동사업은 빛나는 成果를 거두어 그들이 가는 勞動現場에서는 틀림없이 作業成果가 2,3 배로 경증 된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이다. 그러나 藝術人들의 경제선동이란 西歐社會에서의 藝術人들의 社會參與나 公演을 통한 思想教育을 目的으로 하는 蘇聯이나 中共의 경우와는 差異가 있다. 筆者는 本稿에서 경제선동의 발생과 그 內容, 方法 그리고 선동사업이 안고 있는 問題를 살펴 보고 評價하고자 한다.

## II

경제선동을 위해 태천 발전소에 파견된 平壤모란봉 예술단, 평양 교예단, 그리고 평양 예술단원들은 아래와 같은 金正日의 敎示를 받들어 경제선동을 한 結果 作業實績이 2 배로 뛰어 올랐고 종전의 운반계획을 200%

이상 돌파하여 계속 혁신을 일으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험은 여러가지 선전선동 수단과 형식들을 옮겨 결합하여 경제선동을 진공적(進攻的)으로 벌릴 때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 불러일으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양양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sup>5)</sup>

위의 글로 미루어 보아 北韓藝術人들의 경제선동 사업은 生産力, 經濟力 向上을 위해 필수적인 要件이라는 그들의 主張을 실감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선동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경제선동은) 당 경제정책 관철에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 일으키는 힘 있는 정치사업. 영광스러운 당 중앙이 항일 유격대식 선동방법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구현한 선동형식으로서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과 혁명적 지향에 맞는 우리 식의 위력한 정치사업 방법이다. 경제선동 수단들과 선동력량들, 선동형식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움직여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즉시에 효과를 내게 하는 전투적이며 종합적인 선동형식이다. 경제선동은 당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뚜렷한 투쟁목표와 구체적인 전투과업, 대중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한다. 경제선동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어진다. 선동연설이나 해설담화가 필요할 때에는 구두선동을 격동적으로 들이대며 전투적인 구호나 속보로 생산의욕을 북돋아주어야 할 때에는 직관선동을 박력있게 들이대며 예술의 힘으로 발동해야 할 때에는 예술선동을 전격적으로 벌린다.”<sup>6)</sup>

위의 定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藝術人들의 生産現場 파견을 노동자들의 娛樂이나 餘暇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政治事業에 더욱 큰 比重을 두고 있다. 이 政治事業을 위한 具體的인 方法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經濟煽動事業의 뿌리를 金日成의 抗日遊擊戰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의 경제선동의 뿌리를 抗日遊擊戰時代에서 찾을 뿐 만이 아니라 그들은 藝術을 통한 대중 계몽의 시작도 金日成의 遊擊戰時代에 이루어졌다고 主張한다. 그들이 社會主義 社會藝術의 極

5) “다양한 공연종목으로 벌린 경제선동”(『조선예술』 1986, 6월호 평양), p. 50.

6) 『백과사전』(제 1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p. 242.

적라고 자랑하는 革命歌劇 「피바다」도 실은 抗日遊擊戰時代に 시작된 것임을 강조, 金日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우리는 〈피바다〉라는 연극을 만들어 유격대원들 앞에서도 공연하였습니다. 연극 〈피바다〉는 일제놈들이 조선인민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만행을 폭로하고 주인공이 점차 각성하여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였습니다.”<sup>7)</sup>

예술선동대는 예술의 大衆浸透의 뿌리를 찾는 듯 그들은 “항일 유격대원들처럼 배낭을 메고 나팔을 불며 건설자들 속에 깊이 들어간다.”<sup>8)</sup> 이러한 點으로 보아 北韓藝術人들의 경제선동은 金日成의 神話的 存在, 그에 대한 무한한 崇拜, 그의 命令에 대한 無條件 服從을 근로자들에게 강조하는 思想煽動임을 알 수 있다. 경제선동을 옛날 抗日遊擊隊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그들은 生産現場을 「전투현장」, 公演準備를 「작전계획」<sup>9)</sup>이라는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선동은 또한 그들의 經濟計劃을 구체화 하기 위해 내세운 이른바 3大革命에 연관된 事業이기도 하다. 3大革命이란 思想, 技術, 文化革命을 말한다. 思想革命은 “勞働者들로 하여금 이른바 낡은 思想에서 벗어나 共產主義의 열렬한 革命家가 되겠금 共產主義 思想으로 武裝하는 것을 의미한다.” 技術革命은 “모든 勞働者들에게 機械의 利用을 習得시켜 機械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능률을 올리는 동시에 節約하여 生産性を 올려보자는 것이다.” 文化革命은 “冊을 통하여 金日成 唯一思想을 주입하는 것이다.”<sup>10)</sup>

그렇기 때문에 경제선동에 가동되는 藝術人들은 단순한 그들의 特技를 통해 노동자들의 生産意慾을 고취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와 長期間

7) 「백과사전」(제 5권) S.V. 「피바다」項.

8) “항일 유격대식 경제선동으로” (「조선예술」 1987, 3월호), p. 47.

9) “태천 발전소 건설장에 힘있게 울려 퍼진 경제선동의 북소리” (「조선예술」 1986, 12월호), p. 51.

10) “北韓社會論” 「北韓文化論」(서울: 北韓研究所, 1978), p. 476.

에 걸쳐 生活을 같이하며 스스로도 3大革命思想으로 무장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 具體的으로 이 3大革命思想을 교육 계몽해야 할 政治的 任務으로 맡고 있다. 경제선동에 동원되는 예술인들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up>11)</sup>

北韓의 경제선동의 방법과 내용을 이해 하기 위해 그 實例를 들기로 하겠다. 그들의 선동은 노동자들의 日課가 끝난 휴식시간을 利用하는, 상식적인 慰問 宣傳公演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발관개 설비생산 전투장에서 농민들이 출근하는 새벽부터 선동이 시작된다. 예술선동대 대장은 새벽에 일터로 가는 농민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소리지른다.

“우리 동무들을 좀 보십시오. 누구라 할 것없이 저렇게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한 기세로 가득차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가까운 몇해 안에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4대 기술혁명 과업을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앞서 가던 방송차의 확성기를 통해 선동원들은 노래를 한다.

아 분수식 발관개 건설을 다그치는  
 일손에  
 새로운 힘이 응축는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농촌테제 과업을 완전히 수행해 가는  
 끝없는 자부심을 안고  
 온 나라의 분수식 발관계 건설을  
 하루 빨리 다그쳐 끝내자!

11) “발관개 설비생산 전투장에 펼쳐진 경제선동무대” (『조선예술』, 1988, 4월호), pp. 61~63.

이어 방송차를 통해 선동연설을 한바탕하고 취주악이 연주되며 온 읍안을 들었다 놓는다.<sup>12)</sup> 근로자들의 日課가 시작되기 前부터 선동을 시작하는 것이 상례인 모양이다.

순천 비날론 연합기업소에서의 선동도 예외가 아니다. “예술인들은 우선 준비작업을 하는 아침시간을 리용하여 건설자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심금을 울리는 선동연설을 하였다.……이러한 호소에 건설자들은 기세 충천하여 작업장으로 진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고동대 활동을 벌려 용기백배한 그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준 다음 예술인들은 조립공들, 용접공들, 설비운전공들을 찾아가 건설장 여기저기에서 힘있는 경제 선동을 벌렸다.” 선동원들은 근로자를 따라 공장에 도착, 노동자들이 작업준비를 하는 짝시간을 이용하여 또 한차례 구두선동을 시작한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신천땅은 지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미제놈들에게 의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남먼저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분수식 발판개 건설에 응당 앞장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 분수식 발판개 건설을 앞당겨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설용 실비보장을 담당한 우리들이 얼마만큼 주인다운 태도로 일하는가에 달려 있다.”

순식간에 온 작업장은 뜨거운 열풍으로 차고 넘쳤다. 이들의 기세를 늦출세라 기동예술 선동대는 재빨리 현장 경제 선동에 들어 간다. 선동원들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笑談선동이 벌어진다.<sup>13)</sup>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경제선동반의 노력으로 노동자들은 오전 계획을 2배 이상 완수했다. 공연무대가 펼쳐진다. 공연무대에는 “모두 다 발판개 건설로!”라는 구호가 쓰여진 붉은색 플랫카드가 바람에 펄럭인다. 이윽고 남녀 선동원들의 오전중 전투성과를 축하하는 인사의 말과 함

12) “분수식 발판개 건설장을 뒤흔드는 진격의 나팔소리” (『조선예술』 88년 1월호), pp. 59~60.

13) “순천땅에 울린 경제 선동의 북소리” (『조선예술』 1986, 10월호), p. 153.



게 환영곡의 선율이 울린다. 기동예술선동대 대원들이 수고한 노동자 대표들에게 꽃뭉음을 안겨주자 남자대원들이 그들을 냉큼 목마에 태우고 무대 위로 올라가 기세좋게 한바퀴 돈다.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행복에 겨운 기쁨의 미소가 함박 어려 있다. 이어 노래와 寸劇이 시작된다. 합창시와 취주악이 뒤따른다. 4 작업반장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외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분수식 발판개를 하루 빨리 실천해서 강냉이 대풍을 마련하구 어버이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게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드립시다!”

노동자들이 박수로 호응한다. 노동자들은 취주악 행진곡에 맞추어 작업장으로 돌아간다. 기동 예술선동 대원들은 기세를 늦출세라 이번에는 공동대 활동으로 노동자들의 사기를 돋구어 준다.

한낮이 기운 저녁녘 3소대 작업장에 뜻하지 않던 바위돌이 나타나 소대의 전진을 가로 막았다. 이 소식을 들은 기동 예술선동 대원들은 지체 없이 그곳으로 달려가 무려 40 분간이나 계속 메카폰 선동과 취주악을 연주한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동으로 암반은 뿌리채 뽑혀있고 소대의 진격로는 열리고야 말았다. 순간 소대원들은 기동 선동대원들을 부동켜 안고 뜨거운 것을 삼키면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망거미가 스며들 무렵 방송 선전차의 확성기에서는 이날 전투계획을 200%로 넘쳐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와 같이 정주군 기동 예술선동 대원들은 농촌테제 관철을 위한 당면한 발판개 건설 전투장에서 참신하고도 패기있는 경제 선동을 들이댐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당이 현명하게 밝혀준 예술선동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지 활동을 통하여, 웅변적으로 확증해 주었다.<sup>14)</sup>

北韓에서는 모자라는 노동력을 補充하기 爲해 軍隊를 동원한다. 이들을 상대로 선동사업을 벌린 경제선동원들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한다.

14) *Ibid.*, 「태천 발전소……」, p. 51.

“군인 전투원들은 이 깊은 산골짜기에 예술인들을 보내주시고 이렇듯 색다른 가장물까지 동원해서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고무를 주도록 해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믿음과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감동의 눈물을 삼켰고 예술인들은 이 환영을 그토록 기뻐하면서 새 전투결의로 가슴 불태우는 군인 건설자들의 감동된 모습에 더 한층 감동되어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sup>15)</sup>

선동원들은 군인들에게 기초바다 쌓기 공사는 아직 1주일분이 남았는데 오늘 중으로 1주일 분을 해내자고 독촉한다. 군대를 상대로 한 선동의 내용은 앞서 實例에서 본 바와 대동소이하다. 선동대원의 열성적 노력으로 “군인 건설자들은 비 내리는 6시간 동안에 하루 계획을 250%로 해제끼는 새 기적을 창조하였다.”<sup>16)</sup>

위의 實例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말하는 경제선동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慰問이나 娛樂을 통해 근로자들의 緊張과 疲勞를 풀어주는 清凉劑的 役割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緊張을 지속케 하고 寸時의 雜念도 갖지 못하게 다그치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경제선동대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근로자들은 그들의 극성스러운 외침과 독촉을 피할 수가 없다.

보통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경제선동반이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다. 1975년의 이 선동반의 수와 공연에 대해 禹吉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75년 2월을 전후하여 예술단과 예술선동대가 164개 市·郡에 나가 40만 5,500여명을 대상으로 모두 507회의 예술선동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1977년에는 무대공연 2,053회, 현장 공연 3,687회로서 총 5,740회의 공연을 했으며 관람자 수는 2,101,640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1978~79년에도 거의 비슷한 공연회수 및 관람자 수를 발표했다. 80년대에 들어와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81년 한해 동안 南浦감문 건설현장에서는 25개의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하기도 했다. 특히 人民軍 협주단의 예술선동 소편대는 매일 작업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4회 이상씩의 공연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sup>17)</sup>

15) *Ibid*, p. 51.

16) *Ibid*, p. 52.

17) 禹吉命, “북한예술인들의 現住所”, 「北韓」, 1985년 11월호, p. 172.

통상 선동대는 “두개 편대를 조직하여 20일간 씩 교대로 경제선동 활동을 하며 한 편대가 20일간 현지에 나가서 경제선동을 벌리는 동안에 다른 편대는 작품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sup>18)</sup> 경제선동 편대의 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원은 선동구호, 연설, 연기, 재담, 노래, 악기 연주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고도의 기술 훈련을 받는다. 그들은 대원들의 재능을 이렇게 자랑한다.

“모든 기동예술 선동대원들이 누구나 독창가수가 되는가 하면 선동원이 되고 재담수가 되고 심지어는 너성대원들까지 모두가 나팔을 능란하게 불 수 있게 만능으로 준비되었으니 어찌 새로운 종목이 끊어지랴.”<sup>19)</sup>

그들은 선동대원들의 기술향상에 많은 노력을 한다. 선동대장들의 좌담회에서 한 편대장은 “예술선전대 활동에서 우리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는 경제선동 작전을 더욱 면밀히 짜고 들며 예술인들의 기량을 부단히 높혀 예술선전대의 위력이 더욱 높히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힘과 정력을 다바쳐 나갈 것 입니다.”<sup>20)</sup>라고 말하고 있다.

1987년은 그들이 경제선동 사업을 시작한지 14년째가 되는 해다. 그들은 平壤에서 ‘각도 예술선전대들의 종합공연’을 가졌다. 各道 선동대의 長技자랑 같은 形式으로 進行된 이 종합 공연은 합창, 방창, 독연, 무용, 대화시, 사이극(幕間劇) 등 선동대가 노동현장에서 가동한 전 분야를 망라한 선동 공연이었다. 그러나 이 공연을 통해 강조된 것은 대원들의 재능이나 예술성 보다는 黨政策의 관철이었다. 이 종합공연으로 미루어 보아 각 경제선동대의 공연 종류며 내용은 선동대가 獨自의으로 또는 現場事情에 따라 即興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黨의 철저한 統制下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각도 예술선전대 종합공연은 당

18)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자”(좌담회) (『조선예술』, 1986년 5월호), p. 58.

19) *Ibid*, “분수식 발판개……”, p. 60.

20) *Ibid*, “경제선동……”(좌담회), p. 60.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전투적인 예술형식으로 일관됨으로써 근로자들은 당 정책 관철에 힘있게 고무 추동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선동대는 근로자들을 慰問하거나 그들에게 娛樂을 제공하여 내일을 爲한 새로운 活力을 불어 넣어 주기에 앞서 黨의 정책을 실천하고 金日成, 金正日에 對한 無條件 복종심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1次的인 목적임을 綜合公演의 다음과 같은 그들의 評價로 알 수 있다.

“각도 예술선전대의 이번 종합공연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온 강산에 힘차게 울리도록 하여 주신 때로부터 14년간에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 오면서 모든 예술선전대들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예술선전대 활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교양하는데서 얼마나 큰 은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각도 예술선전대는 앞으로도 우리 당이 밝혀준 예술선전대 활동의 지침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들끓는 사회주의 건설장에 나가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 당 정책을 제때에 받아 물고 호소성있게 창작한 우수한 예술작품을 가지고 예술선전, 경제선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 3차 7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 충동 하여야 할 것이다.”<sup>21)</sup>

### III

앞서 언급했 듯이 藝術人의 경제선동은 金日成의 抗日遊擊戰時代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理論의 整理와 實踐은 金正일에 依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이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金正日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 당 사상사업과 경제건설, 혁명적 문학예술과의 호상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해명에 기초하시여 예술선전에 관한 이론을 새롭게 밝혀 주시었다”<sup>22)</sup>라고 말하고 있다.

21) “당의 의도를 관찰하고 있는 전투적 예술”(『조선예술』 1986년 6월호), p. 20.

22) 정애순, “예술 선전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주동하는 위력한 선동수단”(『조선예술』, 1986년 12월호), p. 37.

그들은 문학·예술이 경제선동의 수단으로 가동되는 이유는 문학 예술이 갖고 있는 고유한 感性的 특성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바로 이런 感性的 특성으로 하여 혁명적 문학 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북부수단으로 된다고 본다. 경제선동에 가동되는 공연예술의 長點은 공장, 작업장, 탄광, 지하막장, 논밭머리, 어장, 고기배 위에서만나 깊은 밀림속 등 어디서도 할 수 있는데 있다며 그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생산현장들에서 직접 공연하는 예술선전은 지금까지 예술활동을 규제하고 제한하여 왔던 장소문제를 가장 능동적으로 빛나게 해결하여 주고 있다.”<sup>23)</sup>

고 주장한다. 경제선동반이 小規模인데다가 그들이 하는 공연이 정상적인 무대 예술이 아니라 고작 독창, 합창, 나팔불기, 談笑, 선동연설 등이고 보면 애당초 무대 空間에 구애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場所문제를 해결한 경제선동은 勞動階級の 勝利라며 이에 政治的인 意味를 부여하여 다음과 같이 自讚하고 있다.

“인민경제 최전선의 전투장들을 활동거점으로 정하고 경제선동의 북소리, 진공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리게 된 것은 특권층을 위한 예술, 도시 중심의 극장 예술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의연히 낡은 형식의 예술활동에 매달려 있는 나라들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문학 예술 활동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된다.”<sup>24)</sup>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노동계급은 본격적인 藝術은 불 必要가 없다는 말이 된다. 근로자,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의 慰問公演에는 假設舞臺가 세워진다. 그러나 北韓에서의 경제선동대는 始終 근로자를 따라 다니며 그들의 주위를 맴돌고 노동을 독촉하기 때문에 假設舞臺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선동반의 공연은 그들의 말대로 進攻的이며 機動的이다. 이러한 공연에 固定舞臺가 논의될 餘地는 없는 것이다.

23) *Ibid*, p. 37.

24) *Ibid*, p. 38.

그들은 主張한다. 그 방법에서 진공적인 것은 그것이 바로 속도전의 요구와 사상전의 요구를 자기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공 그 자체가 멈춤을 모르는 높은 속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사회주의 대건설의 본질적인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선동 방법이 進攻的이고 機動的인 동시에 그 공연은 電擊的이어야 한다고 그들은 主張한다. 進攻, 機動, 그리고 電擊이란 어휘 자체가 공포감을 주는 軍隊式 用語이다. 그들은 선동공연이 電擊的이어야 한다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술선전은 사상전의 투쟁 대상에 대하여 틈을 주지 않고 집중포화를 들춰우며 예술공세를 들이 대기 때문에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저해하는 낡은 사상 요소들을 최단기간 내에 뿌리뽑도록 하며 따라서 경제를 높은 속도로 전진하게 한다.”<sup>25)</sup>

敵軍에게 奇襲을 가하듯 근로자들을 이쪽이 要求하는 페이스에 말려들도록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 붙이라는 말로도 해석된다.

그들은 또한 경제선동반은 ‘알기 쉽게 해설해 주는’<sup>26)</sup> 공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 중앙 예술선전대가 북부 철길 건설장에서 벌렸던 경제선동 보고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선동반의 노래가 얼마나 쉽고 容易한가를 말해준다.

“막장 공연은 공연이라기 보다는 오락회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술인의 독창이 끝나자 돌격대원 한 동무가 달려 나오더니 같이 2중창을 부르자고 제기했다. 방금전까지 콩크리트 타입작업에서 일손이 맞던 그들은 노래 또한 잘 맞았다. …… 모두 일어나 주먹을 흔들며 다같이 부르는 ‘청년 행진곡’으로 넘어갔고 이어 막장에서는 춤판이 벌어졌다.”<sup>27)</sup>

선동공연에 있어서의 容易性이란 그 내용에 通俗性이 있어야 한다는 사

25) *Ibid*, p. 38.

26) *Ibid*, p. 38.

27) “전투적이고 기동성있는 예술선동” (『조선예술』 87년 6월호), p. 20.

실을 말한다. 이 通俗性이란 비단 선동공연의 중요한 要素일 뿐만이 아니라 北韓에 있어서의 藝術內容의 핵심적인 要素이기도 하다. 北韓은 그들의 소위 革命歌劇인 「피바다」를 主體思想과 革命思想을 藝術的으로 表現한 최고의 綜合藝術이라고 자랑한다. 金日成은 外國記者들에게 「피바다」에 對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예술, 인민들이 좋아하는 예술을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사를 하나 써도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혁명가곡 「피바다」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가극은 아주 통속적입니다.”<sup>28)</sup>

이처럼 北韓에서는 藝術에 있어서의 容易性和 通俗性을 강조한다. 뿐만이 아니라 그 表現이 直率의이기도 하다. 분수식 발관개 건설 현장에서 7명의 반원이 出演하여 근로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가을에 가 보자요」라는 작품의 마지막 部分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臺詞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말 분수식 발관개가 좋기는 좋다.”

고 말하는 할아버지에게 손녀는 “할아버지, 분수식 발관개를 하면 보슬비가 내리듯 땅을 고르로이 적셔줄 수 있구 또 강냉이가 물을 흠뻑 먹어야 하는 개풀이가 나올 무렵이라던가 목말라 할 때 마다 언제든지 필요할 만큼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냉이가 그렇게 잘 된거예요.”<sup>29)</sup> 通俗性을 강조하는 理由를 그들은 다음과 같이 理論化한다.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광범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있다는 사정과 또한 근로자들의 사상적 준비 정도와 문화지식 수준 직업과 연령, 성격과 취미 등이 각이하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각이한 근로자들 누구나가 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커다란 감동과 충격을 받고 당면한 생산과제 수

28) 김일성,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백과전서』(제 5 권), p. 252.

29) *Ibid*, “발관개……”, p. 62.

행에서 당장 큰 은을 내도록 하자면 예술선전 사업은 통속화 하여야 한다.”<sup>30)</sup>

이런 예술선동에 있어서의 通俗性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政治性和 藝術性이 理想的으로 잘 결합될 때 비로소 그 目的을 다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그들은 政治性和 예술성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무의미한 결과 밖에 초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政治性을 약화 시킨다면 당 정치선동 사업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술선전에서 경제선동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빈 구호나 부르며 왈왈 고기만 하여서는 오히려 서투른 장면만도 못하게 되고 그것은 사실상 선동의 정치 사상성 자체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sup>31)</sup>라고 경고 한다.

이처럼 경제선동 예술선전에서의 政治性和 藝術性的 畵은 結合을 주장하면서도 그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 兩者間的 關係에서는 그래도 政治性이 優位에 서야 한다는 모순된 말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革命歌劇 「피바다」를 抗日遊擊戰時代에 金日成이 창작한 理由도 實은 政治的 이데올로기나 抗日思想을 人民에게 심어 주기 爲해 藝術의 形式을 빌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렇게 表現하고 있다.

“1930년대 암담한 조선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주인공인 어머니가 모진 시련속에서 점차 革命을 인식하고 투쟁의 길에 나서는 과정을 통하여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하며 혁명의 길만이 조국을 광복하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한 내용이다.”<sup>32)</sup>

예술선전 경제선동은 이미 1930년 金日成의 抗日遊擊戰時代에 그 方向이 提示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경제선동도 그 당시처럼 “사상성을 위주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합”<sup>33)</sup>시켜야 한다는 思想性 先行을 내세

30) *Ibid*, 정애순, “예술선전은……”.

31) *Ibid*, p. 39.

32) 「백과전서」(제 5 권) S.V. “피바다”項.

33)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 「백과전서」(제 3 권), p. 464.



운다. 따라서 경제선동에 나서는 예술인도 金日成의 抗日유격전을 본받아 思想的으로 武裝하여 경제선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 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항일 유격대식 선동방법을 자기 활동에 빛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선전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의 혁명적 예술인들은 항일혁명 투쟁시기 탄압이 빚발치는 전투장들에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여 그들의 전투사기를 높여 주었던 것처럼 오늘 당의 경제정책을 받들고 생산전투를 벌리는 사회주의 건설장들을 찾아가 근로자들을 고무 충동하는 예술활동을 벌리고 있다.”<sup>34)</sup>

경제선동대원들은 스스로 思想的으로 政治的으로 덜 武裝된 狀態를 수시로 自我批判한다. 1986년 5월에 발간된 「조선예술」誌에는 경제선동 분대장들의 座談場面이 실려 있는데 수령과 지도자 동무들의 指示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이 미비했다는 自我批判이 나타나 있다.

기자 :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경제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최근에 또 다시 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선전과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남철손(문화예술부 준중문화처 처장) :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로 근로자들을 불러 일으키는데서 각도 예술선전대들의 임무가 크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당에서는 예술선전대들의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의 의도대로 일을 잘하지 못했으니 경제선동 활동이 경제건설에서 큰 은을 내지 못했다.

문정삼(자강도 예술선전대 부대장) : 지난 해에 경제선동 활동을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벌렸지만 경제선동 대상단위에 대한 사선 연구사업과 실제 걸린 고리를 푸는데 이바지할 작품 창작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다.

박근성(개성시 부대장) : 우리의 경우도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속있게 관철하지 못하고 기성작품을 가지고 한 회수가 적지 않다.

문 : 당의 경제정책을 선전하는 예술선전대 배우는 경제분야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예술인들을 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과 함께 인민경제 여러부분의 지식을 소유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경제선동 활동에

34) *Ibid*, 정애순, p. 37.

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겠다.<sup>35)</sup>

#### IV

예술인들의 경제선동을 당 경제정책 관철에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 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이라고 定義한 北韓은 예술인들의 경제선동의 실마리를 金日成의 抗日遊擊戰에서 찾는다. 이 獨創的인 方法을 過去 14年間 具體的으로 實現, 그 仔細한 方法을 敎示한 사람은 金正日이라는 것이다. 경제선동 事業에서 그들 父子를 연관시키는 것은 世襲問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은 勿論이다. 또한 經濟선동은 그들의 經濟開發을 爲해 내세운 3大革命思想의 보급과 관철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方法으로 本格的인 가동을 보았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들은 이 경제선동을 시작한 후부터 經濟 各部門에서 획기적인 生産力의 增加를 보아 100%에서 심지어는 250%의 神話的인 增産力을 보았다고 主張한다. 경제선동이 14年間의 歷史를 갖게 된 현재, 그들은 初創期와는 달리 경제선동의 意義와 內容 및 形式을 그들 나름대로 理論化하기 시작했다. 西歐 自由主義國家에서 생각하는 慰問, 娛樂, 餘暇活用在 아니라 그들의 경제선동은 高度의 政治性을 띄고 있으며 目標量 超過를 爲한 軍隊式 攻擊方法을 강조한다. 그들은 작업현장을 戰鬥場으로, 事前計劃을 戰鬥準備, 公演을 戰鬥라는 말로 표현한다. 경제선동의 중요한 方法으로 進攻性, 機動性, 그리고 電擊性等 戰鬥用語를 서슴치 않고 使用한다.

이러한 三大方法은 흡사 生産量 超過라는 攻擊目標高地에 도전하는 兵士들을 間斷없이 督戰하는 行爲와 다름이 없다. 이미 現場에서의 實例에서 제시했 듯이 경제선동은 日課가 시작되기 前 새벽부터 시작된다. 경제선동만은 組를 나누어 근로자들의 作業場所까지 進攻, 잠시도 그들에게

35) *Ibid*, 좌담회, p. 57.

설 틈을 안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갖은 技術을 가동하여 督戰을 계속, 日課後에까지 선동은 집요하게 벌려진다.

그들의 선동은 근로자들의 目標量 超過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同時に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에 대해서는 흥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그 집행에서는 오직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만이 있을 뿐”<sup>36)</sup>이라는 指導者들에 대한 絶對, 無條件, 服從만이 生存의 手段임을 끈질기게 반복한다. 경제선동대들은 근로자와 적게는 1주일 보통 20일을 같이 지내며 그들은 進攻的, 機動的 그리고 電擊的인 선동을 되풀이 한다. 이러한 狀況에서의 근로자들의 心的인 부담이며 疲勞感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들은 선동내용의 容易性和 通俗性的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無條件 延長되는 노동시간과 선동반의 독촉에 쫓기우는 근로자들의 知的 水準을 감안할 때 선동내용이 유치할 정도로 通俗的이며 직접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로자들은 노동과 위대한 지도자의 敎示를 따르는 것이 하루 日課의 全部이고 보면 그들 스스로 藝術을 대하고 그 素質을 배양하거나 幅넓은 知的 探究를 할 時間的 餘裕는 없는 것이다.

경제 선동물의 內容은 藝術性和 政治性的 적당한 結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들이지만 結局 政治性的의 表現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藝術이 政治的 思想을 내포하지 않는 限, 그것은 [藝術이라고 表現할 수 없다는 풀이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을 目標量 達成을 爲해 몰아부치는 方法으로 進攻, 電擊, 通俗, 그리고 指導者에 순종하라는 政治的 敎育을 내세우며 아울러 藝術性을 云云함은 常識을 벗어난 일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다만 藝術이 갖는 表面上의 表現媒體만 빌려 올 뿐 그들의 예술선동, 특히 경제선동에서는 어떠한 藝術性도 發見되지 않는다.

경제선동대는 예술을 통해 근로자들의 士氣를 양양, 作業目標를 완수하

36) “불바람 세찬 철의 기지에서” (「조선예술」 1986, 9월호), p. 54.

는데 側面支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實은 그들 자신에게도 엄청난 心的 부담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目標量의 超過達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제선동반이 責任을 지게 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경제선동대는 근로자들과 戰鬥을 하는 心理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옳은 경제선동의 성과를 얻기 爲해서는 그리고 자기네들의 生存을 爲해서는 근로자들을 몰아 부칠 수 밖에 다른 道理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目標量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兩쪽의 生存을 爲해 100% 以上の 成果를 냈다는 事實과는 다른 結果報告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可能性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西歐 自由主義國家의 職場人들 역시 가증되는 競爭 때문에 숨통이 막힐 정도로 하루의 日課는 바쁘기 짝이 없다. 그러나 職場人, 그리고 근로자들은 그 바쁜 중에도 용케 자기만의 時間을 마련, 이른바 취미나 餘暇를 최대한으로 活用한다. 취미와 餘暇선용이란 職場에서의 일과와는 전혀 關係가 없는 일들이다. 이러한 自由時間에 직장인들은 그들의 직업과 職場에서의 役割을 잠시나마 忘却의 늪 속에 묻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취미에 몰두한다. 이러한 취미와 여가선용은 마음의 緊張을 풀어주고 내일의 活動을 爲한 清涼劑구실을 하여 結果적으로 職場에서의 능률을 촉진시켜준다. 이러한 우리들의 經驗으로 미루어 볼 때 北韓의 경제선동은 근로자들과의 戰鬥이며 督戰이고 근로자들의 피로와 挫折을 촉진하는 行爲 以外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